

헤어스타일과 지각자 변인이 남성의 외모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류 지 원*

충남도립 청양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개인의 외모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타인을 평가하는 단서로서 작용한다. 얼굴, 체형, 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통해 표현되는 외모는 사회적 상호작용 시 지각자 에게는 착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착용자는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비언어적 단서로서 상징적 역할을 한다(Horn & Gurel, 1981). 현대의 복식문화는 다양한 외모 단서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적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토탈 패션(total fashion)의 경향을 띄고 있으며 메이크업, 헤어스타일과 액세서리, 소품, 모자, 핸드백, 구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식적 요소가 통합되어 하나의 패션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개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전달하게 된다. 특히 인상형성이란 타인에게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말하며, 인상형성 과정에서 신체적 외모(체격, 체형, 얼굴, 건강상태, 의복, 화장, 안경, 헤어, 체취 등)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단서로서 사용된다. 외모를 통한 의사소통은 착용자의 의도와 관찰자의 의도가 서로 연결되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외모와 의복을 통한 의미는 맥락에 의해 이해되고 발견된다. 특히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에서 외모단서는 언어가 갖는 전달력보다 더욱 큰 맥락을 상징적으로 전달하며 의복-메이크업-헤어스타일·액세서리 등의 외모단서에 부여되는 의미는 사회적 정체감이나 상징성, 개인의 특성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의 외모 장식에 대한 반응과 평가는 이전의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이 증가하여 자신의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단순히 의복변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헤어스타일, 화장까지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외모관리에 있어서 남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직접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화장보다는 길이, 색과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변화가 가능하고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의 변형을 선택하고 있다. 이 같은 남성 착용자의 외모단서들은 착용자, 지각자, 상황 등 여러 요인들과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타인을 일관성 있게 지각하게 된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외모는 사회적 맥락과 분리되어 인식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외모도 맥락적 관점에서 인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지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외모변인 뿐만 아니라 지각자 특질들이 이미지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헤어스타일에 따른 남성의 패션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헤어길이와 헤어컬러 및 지각자 변인이 남성의 외모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준 실험연구로 설계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착용자의 이미지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헤어길이(level 1: 짧은 머리-전체 2cm 정도, level 2: 약간 짧은 머리-전체 5cm 정도, level 3: 약간 긴 머리-귀밑 5cm 정도, level 4: 긴 머리-귀밑 20cm 정도)와 헤어컬러(검은갈색-5YR2/2, 갈색-2.5YR3/4, 붉은색-7.5R4/12, 노랑색-2.5Y8.5/10)가 조작된 16장의 자극물과 7점 등간척도로 구성된 47개의 형용사 쌍으로 제작된 의미미분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 및 청양에 거주하

* Corresponding Author: jwvwww@hanmail.net

는 19세부터 38세의 남녀 대학생 및 미용학원의 수강생을 포함한 총 709명으로 편의 표집 되었다. 자료 수집은 2005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총 709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와 자극물에 대한 타당성은 전문가 집단과의 토의에 의하여, 신뢰도는 Cronbach' α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착용자의 외모 이미지차원의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독립변인과 지각자의 특질이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헤어길리와 헤어컬러 및 지각자의 특성이 남성착용자의 외모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착용자에 대한 지각자의 이미지평가를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착용자의 이미지차원은 매력성, 역동성, 품위성, 현시성, 평가성의 5가지 차원의 요인이 도출 되었다. 매력성과 역동성은 짧은 머리에서, 품위성과 현시성, 평가성은 보통 머리에서 보통머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착용자의 헤어길리는 매력성, 역동성, 품위성, 현시성, 평가성의 순으로 남성의 외모 이미지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매력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성과 역동성은 짧은 머리에서, 품위성과 현시성, 평가성은 보통 머리에서 보통머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착용자의 헤어컬러는 현시성, 품위성, 평가성, 매력성, 역동성의 순으로 남성의 외모 이미지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현시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현시성은 검정색 머리에서, 매력성은 붉은색 머리에서, 품위성은 검정색 머리에서, 평가성은 갈색과 검정색 머리에서, 역동성은 붉은색과 노랑색 머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착용자의 헤어길리와 헤어컬러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 이미지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현시성 이미지차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5. 지각자의 특성이 이미지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자의 성별, 전공은 착용자의 이미지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자의 거주지는 착용자의 이미지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착용자의 이미지차원에서는 매력성에, 지각자의 전공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 차원에서는 역동성 이미지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헤어길리에 따라 지각되는 외모이미지는 달라지므로 패션 이미지 코디네이션 연출 시 헤어길리에 대한 이미지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남성의 헤어스타일에는 단정하고 짧은 길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헤어컬러의 경우에도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검정과 갈색이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으며 노랑, 붉은색처럼 눈에 띄는 컬러가 역동적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검정색과 같은 보편적인 컬러가 의외적으로 눈에 띄는 현시적 컬러로 평가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채에 대한 고정관념과 실제 머리에 적용된 헤어컬러의 이미지가 다름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헤어길리와 헤어컬러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이미지지각 시 날개의 여러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내, 외적 특질들 간에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조합되어 보이지 않는 개인의 특성과 행동까지도 추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 남성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헤어길리나 헤어컬러의 변화를 통한 이미지 연출 시 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